
碩士學位請求論文

文化指導를 통한 效果的인 英語教育

指導教授 金 鍾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姜 京 希

1991年度

文化指導를 통한 效果的인 英語教育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姜 京 希

指導教授 金 鍾 勳

1991年 7月 日

姜京希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1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主審 신정호 

副審 高 泰 洪 

副審 金 鍾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I. 서 론	1
II.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문화	4
2.1 비언어적 행위의 중요성	5
2.2 제스처	6
2.3 비언어적 신호	9
2.4 간격 유지	10
2.5 신체 언어	11
2.6 시선 주기	14
III. 언어적 의사소통과 문화	16
3.1 신상 표현	16
3.1.1 이름	17
3.1.2 호칭	18
3.1.3 인사	20
3.2 식생활	23
3.2.1 식사	23
3.2.2 식사 예법	25
3.2.3 음식 주문	26
3.2.4 음주 풍습	28
3.3 일상 생활	29
3.3.1 시간 관념	30
3.3.2 손님 초대	31

3.3.3 편지 쓰기.....	33
3.3.4 팁 주기.....	38
3.4 물건 구입	40
3.4.1 선물 교환.....	40
3.4.2 약국.....	41
3.4.3 잘못된 표현	43
3.4.4 지폐 계산.....	45
IV. 문화 지도 방안	46
4.1 문화 즉흥 지도법	46
4.2 문화 동화 지도법	47
4.3 문화 캡슐 지도법	50
4.4 문화 토론 지도법	52
4.5 기타 지도법	53
4.5.1 게시판.....	54
4.5.2 모의 게임.....	54
4.5.3 노래와 춤	55
4.5.4 축제.....	56
4.5.5 신문과 잡지	57
4.5.6 자료 수집.....	58
V. 결 론	59
참고문헌	61
영문초록	64



I. 서 론

우리 나라 교육 과정에 나타난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보면 언어의 4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기르며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시키며 궁극적으로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우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Too many books, too much stress on grammar, too little emphasis their culture.”¹⁾란 말이 단적으로 보여 주듯이, 많은 교재들이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할 때 외국 문화를 가르치는 데 너무나도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언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언어는 그 언어가 속한 문화권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사상을 나타내는 수단이므로 그 언어 속에는 반드시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의 문화권 내에서 생활을 통한 경험이 없거나 목표 언어의 문화적인 내용에 관한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목표 언어의 모국어 화자들과 행동의 조화와 일치가 곤란케 되고, 또 대화를 나눌 때 엉뚱한 이해와 오해가 생겨 전하려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의사소통이 문화요, 문화가 곧 의사소통이다”라는 Hall(1959:93)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와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외국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 그 사회의 언어 사용 규칙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진정한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은 물론, 몸짓

1) Wilga M. Rivers, *Speaking in Many Tongues: Essay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Massachusetts: Newbury House Publishing Inc., 1972), p. 114.

이나 손짓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을 포함하며, 특히 모국어 화자와 사회적, 심리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지도는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한·영 양어간의 상호의사소통(cross-cultural communication)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갖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socio-cultural background)과 정서적 배경(emotional background)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외국인, 외래 문물과의 빈번한 접촉은 물론, 대중 매체의 발달로 타문화에 대하여 무척 익숙한 듯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서 보다 올바르게 적극적인 문화 지도를 통한 효과적인 영어 교수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사실상 동일 문화권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문화권의 사람끼리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 내용, 방법, 양식 등은 문화에 따라 각각 달리 표현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외국어를 가르칠 때 그 언어가 작용하는 문화를 동시에 가르쳐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으며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기할 수 있는 교수법은 바로 교단에 선 일선 교사에게 의해서 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들의 문화와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도출하고, 두 문화 간에 차이가 나는 점을 어떤 방법으로 영어 교육 현장에서 지도할 것인지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바람직한 현장 영어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전체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I 장에서는 영어 교육상 문화지도의 필요성과 이 논문의 목적 및 취지를 언급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영미인들 간에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말을 하지 않고 뜻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소개하고, 한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표현 방식은 같으

나 뜻이 다르든지, 혹은 표현 방식과 뜻이 일치하는 표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이 영미인을 처음으로 만나서 익숙해진 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기 까지 여러 면으로 부딪치게 되는 문화적인 주제와 상황들을 설정하면서 이를 영어 교육과 관련짓는 시도를 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지도하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가능한지를 제시해 보았다. 끝으로 제Ⅴ장은 결론으로서 앞에서 논한 바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였다.



Ⅱ.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문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을 하지 않고 뜻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행복, 두려움, 슬픔 같은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들은 말에 의하지 않고도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바로 이같은 감정을 말을 통해 표현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뜻을 충분히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나라마다 결코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우정을 표현할 경우, 어떤 나라에서는 남자끼리 껴안고 여자들끼리 손을 잡는게 허용되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감정의 표현이 충격적일 수가 있다.²⁾

따라서 문화가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당연히 학습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문화를 배우는 장애는 Brown(1980 : 199)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더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제스처, 비언어적 신호(nonverbal cues), 간격 유지(space), 신체 언어(body language), 시선 주기(eye contact)로 나누어 영미인들이 그 같은 비언어적 행위를 함으로써 정확히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를 고찰하겠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비언어적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시 생각해 보겠다.

2) Deena R. Levine & Mara B. Adelman, *Beyond Language*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1982), p. 44.

2.1 비언어적 행위의 중요성

과거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네 가지 기능을 습득 시키는데 주력해 왔으며, 이 같은 기능을 잘 기르지만 하면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언어를 통해서만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잘 전달 할 수 있으므로 영어 교육도 그 같은 언어의 기능을 숙달시키는 데 주력하면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 데에는 꼭 말에 의한 의사소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의하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사를 전달할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상이나 감정, 태도 등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말을 통해서만 그 같은 느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손짓, 얼굴 표정, 웃음, 몸동작, 몸의 접촉 등을 통해 우리의 의도를 더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

박명석(1982 : 71)에 의하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상황에 따른 사회적 인 의미가 말을 통해서 35%만이 전달될 뿐이고, 55% 이상이 비언어적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고 있다. “그들의 말없음 속에 말이 있었고, 그들의 제스처 속에 언어가 있었다.”(V.ii.13)³⁾라는 Shakespeare의 글귀가 암시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손짓과 몸짓은 말로 표현하는 내용을 반복해 주거나 대신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강조하거나 보충해 주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친구 옷에 얼룩이 묻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가리키거나, 또는 말하지 않고 가리켜도 말에 의한 행위를 대신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과 의사를 교환할 때 말이 통하지 않거나 오해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말에 의하지 않는 비언어적 행위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지 못했을 때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3) W. Shakespeare, *The Arden Shakespeare: The Winter's Tale* (London : Methuen, 1966), pp. 146-47.

이처럼 비언어적 행동 양식이 언어 집단과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로서는 영미인의 몸짓과 손짓, 눈짓, 신체언어 등이 함축하는 바를 분명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2.2 제스처

우선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몸짓을 들 수 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전일지라도 그 사람의 몸짓을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이 뜻하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제스처는 그 사람의 태도, 감정, 관심 등을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도 제스처를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의도한 바를 전한다.

1. O.K.를 표현할 때는 손가락으로 원을 만든다. 반면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 제스처가 돈을 뜻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2. 사람을 부를 때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집게 손가락만을 오므렸다 폈다 한다. 반면에 이 제스처는 우리 나라에서는 무례한 표현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3. 행운을 빌어주는 표현은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겹친다.
4. 승리를 뜻하는 표현은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사용, V자를 만든다.
5. '나는 모르겠다'는 표현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어깨를 움츠리며 추켜올린다.
6. 무언가에 놀랐을 때나 잊어 버렸을 때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친다.

4) Rhona B. Genzel & Martha Graves Cummings, *Culturally Speaking*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86), p.2.

7. 생각할 때는 오른손으로 턱을 받친다.
8. 'no good'(좋지않다)이란 표현은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한다.
9. 흥분했을 때는 양손을 주먹쥐고 들어 올린다.
10. 그림 10번에서 볼 수 있듯이 흔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며 어른들은 농담으로 이를 표현하는데, 나쁜짓을 했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이 제스처를 사용한다.
11. 주로 스포츠에서 챔피언이나 승자가 되었을 때 양손을 잡고 머리 위로 올린다.
12. 멈추라는 표현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손을 든다.⁵⁾

이들 여러 제스처는 제각기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실제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원래 뜻한 바를 잘 전달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러 제스처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불가피하다.

이들 여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명확한 제스처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⁶⁾



- 5) 동물을 부를 때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손을 위아래로 오므렸다 폈다 하는 제스처가 있다. 또 만족을 표시하는 제스처는 엄지 손가락만 세우고 주먹을 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 사장, 두목을 표시한다.
- 6) 도표 1,2,3,4,5,6,7,9,12번은 Genzel & Cummings (1986 : 3-8)의 *Culturally Speaking*에서 8, 10, 11번은 Zanger(1985 : 2-3)의 *Face to Face*에서 발췌한 것임.



1) O.K.



2) 사람을 부를 때



3) 행운을 빌어줄 때



4) 승리



5) 모름



6) 놀람, 잊어버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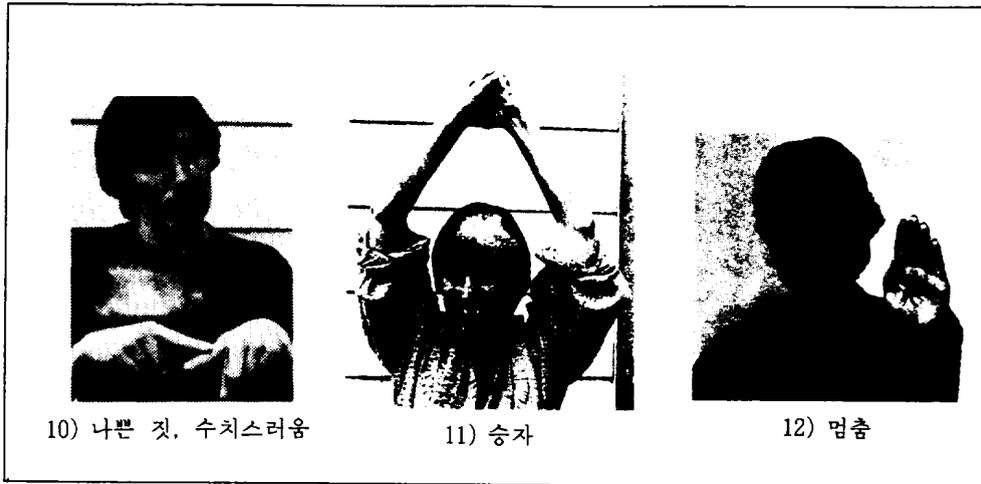
7) 생각



8) 좋지않음



9) 흥분



위 도표를 통해 실제 영미인들이 얼굴 표정과 더불어 얼마나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극명히 알 수 있다.

2.3 비언어적 신호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앞서 언급한 제스처 외에 신체의 일부를 가볍게 움직여 상대방에게 뜻을 전하는 비언어적 신호가 있다. 전절에서 고찰한 제스처가 주로 손가락에 의존한 것이라면, 비언어적 신호란 팔이나 머리, 그리고 어깨 등을 가볍게 사용하여 생각과 느낌을 전하는 것이다. Genzel & Cummings(1986:6)는 비언어적 신호란 말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며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제스처라 규정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스처가 포함되어 있다.

1.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부를 때는 팔을 든다.
2.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할 때도 팔을 든다.
3. 자리를 뜨고 싶다는 것을(가야만 할 때) 알릴 때는 시계를 보고 일어서거나 혹은 소지품을 챙긴다.

4. no를 표현할 때는 머리를 좌우로 젖는다.
5. yes를 표현할 때는 머리를 끄덕인다.
6. 비밀 애기나 농담을 주고 받을 때는 윙크를 한다. 영미인들이 사용하는 위 신호들은 그 의미에 있어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머리를 양쪽으로 흔드는 것이 yes의 의미로, 머리를 상하로 끄덕이면 오히려 no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팔을 가슴에다 대고 흔들거나 머리를 빨리 움직이거나 하여 yes의 뜻을 전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 풍부한 문화 지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⁷⁾

2.4 간격 유지

문화권에 따라 사람들은 대화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들 나름대로 고유한 공간 활용 관습이 있다. 이 사실은 새와 포유동물도 그들이 지키고 사는 고유한 영역과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바꿔 말해, 동물이 살아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거리를 유지하듯이 사람들도 사회적 상황에서 친밀한 대화나 개인 간의 대화, 사교상의 대화, 그리고 대중 간에 담화를 할 때 서로 다른 거리를 지킨다.

필자가 느끼기에 미국인들은 더 애정깊은 표현을 하고 사람끼리 밀착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또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욕구가 강하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눌 때 타인보다는 가족끼리 있을 때 더 가까운 간격을 유지한다.

미국인들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전 간에 대화의 기본이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상대방과 관련하여 일정한 대화 거리를 지킨다. 미국인들이 여러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간격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7) 예를 들어 에스키모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yes와 no의 제스처를 반대로 하여 의미를 전한다.

1. 모르는 사람과 함께 버스를 탔을 때는 적어도 그 사람과 의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음으로써 접촉하기를 피한다. 서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다.
2.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도 낯선 사람과는 가능한 한 의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는다.
3. 줄을 서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2피트⁸⁾나 그 이상 떨어진다. 사람들은 결코 타인을 건드리거나 밀지 않으며 연령과 신분에 관계없이 차례를 기다린다.
4.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을 때에도 의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으며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5. 직장 상사나 학교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3피트에서 4피트 떨어진다.
6. 그룹에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2피트에서 3피트를 유지한다.
7. 친구 간에 사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18인치를 유지한다.
8. 낯선 사람과 있을 때는 3피트에서 4피트 떨어진다.
9. 어린이에게 말을 걸 때에 그 아이의 가족이 아니면 만지거나 키스를 하지 않으며, 3피트에서 4피트 떨어진다.

그러므로 영어 교사는 의자 하나가 대화자 간의 거리를 유지시킴으로써 대화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으며 전하려는 메시지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의자 하나가 대화 행위를 서로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 대화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 신체 언어

언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으로는 신체 운동

8) 12인치는 1피트, 1인치는 2.54센치미터, 1센치미터는 0.394인치이다.

이나 동작을 들 수 있다. 신체 운동이나 동작은 각 나라는 물론 종족간, 성별간, 연령별, 사회 계층별, 교육 정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이른바 동작학(kinesics), 즉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행동 언어의 분야가 부차언어학(paralinguistics)의 하위 부문으로 취급되는 것도 이 분야가 얼마나 의사소통에 중요한지를 반영해 준다. 신체 언어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의사소통 시 손짓, 몸짓, 그리고 얼굴 표정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 영국인, 미국인들은 의사전달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신체 언어를 사용한다.

A Frenchman talks and moves in French. The way an Englishman crosses his legs is nothing like the way a male American does it. In talking, Americans are apt to end a statement with a droop of the head or hand, a lowering of the eyelids. They wind up a question with a lift of the hand, a tilt of the chin or a widening of the eyes. With a future-tense verb they often gesture with a forward movement.⁹⁾

따라서 신체 언어에 숨어 있는 내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사전달을 하는 기본이 된다. 이 사실은 일상 생활에서 영미인과 우리 한국인이 기침을 하거나 어깨를 움츠리거나 코를 푸는 행위를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의 동작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9) Louise Hirasawa & Linda Markstein, *Developing Reading Skills* (Rowley :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1974), p. 103.



10)

두 사람이 서로 어깨를 걸고 웃으며 눈을 마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잘 아는 사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주고받는 말이 무어라 할지라도 손동작이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친하다는 느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의 신체 언어는 무슨 뜻을 전하고 있을까?



11)

10) Rhona B. Genzel & Martha Graves Cummings, *op. cit.*, p. 9.

11) *Ibid.*, p. 10.

두 사람 중 왼쪽 여자가 무슨 말을 함으로써 오른쪽의 여자가 놀랐거나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따라서 이 같은 신체 언어의 사용이 의사소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언어를 완전히 배우려면 적어도 그 문화를 반영하는 신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를 제대로 습득한다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영어 문화권의 신체 언어를 올바르게 터득하는 길에 있음이 재삼 강조되어야 한다.

2.6 시선 주기

영미인이 대화를 나눌 때 적당한 시선을 유지하는 것은 친근감이나 관심의 표시를 나타내므로 모자라거나 과도한 시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낮선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전혀 눈을 돌리지 않는 것도 예의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시선을 적당히 바라보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말을 주고 받는 것이 서로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미인의 경우도 낮선 사람끼리 같이 걸다가 눈이 마주칠 때는 항상 웃으며 "Hi!" 라고 인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미 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실은 어디서든 영미인은 낮선 사람을 만나고서도 친근하게 인사와 대화를 나누는 지극히 개방적인 문화적 배경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영미인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들에게 혼란 비롯처럼 되어 있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주의깊게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시선을 마주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다거나 불신하는 것으로 상대방

이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을 결코 믿지 말라”(“Never trust a person who can't look you in the eyes.”)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 의사소통을 할 때 적당한 시선을 상대방에게 두는 것이 영어 교육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실제 우리 교육현장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speech contest)를 할 때 화자가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를 심사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시선 주기가 얼마나 마음 속의 뜻을 전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Ⅲ. 언어적 의사소통과 문화

앞 장에서 우리는 영미인들이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검토해 보았다. 이것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미인을 처음 만나서 익숙해진 후, 그들의 문화를 점차 이해하게 되기까지 여러 면에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주제와 상황들을 설정하면서 영어 교육과 관련시켜 보겠다. 이런 상황을 학습자들에게 숙달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은 보다 용이하게 영미인들의 문화에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무례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와 상황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필자는 최근 자연교수법(natural approach)을 제시한 Krashen & Terrell(1983 : 67-71)의 이론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의 수준에 맞도록 필자 나름대로 다시 구성하여 논의하겠다. 신상 표현, 식생활, 일상 생활, 물건 구입이라는 4가지 큰 항목을 정하고, 여러 가지 다른 주제와 실제 상황들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3.1 신상 표현



영어를 목표어로 학습하는 우리들은 누구나 모국어 화자 즉,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미인을 만났을 때 그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능한 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이나 당황함을 없애고 그들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아무런 오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정확히 소개하고 자신이 소개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상 표현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므로 영

어 교사들은 우선 이름의 영어식 표현과 호칭 표현, 그리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인사말 등을 학습자들에게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3.1.1 이름

한국에서는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 성(family name)과 이름 형식으로 표현하나 영미인들은 first name + middle name + last name의 순으로 사용한다. 지명이나 주소 표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일반적, 보편적 개념을 작은 개념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문화 배경 때문에 성을 중시하여 성을 앞에 내세우지만, 영어권 문화는 구체적이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크고 일반적인 것으로 가는 경향이 다. 이 사실은 집단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권과 개인을 중시하는 영미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미국인들의 first name을 성으로 오해하기 쉬우며, 미국인 또한 한국인의 이름을 성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홍길동의 형식이지만 미국에서는 John Fitzgerald Kennedy 식으로 사용되므로 한국인 학습자들은 John을 성(last name, family name, 또는 surname)으로 오해하기 쉽다. 게다가 홍길동을 Hong Kil Dong으로 쓰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습관대로 Kil Dong을 성으로 이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Kil Dong Hong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¹²⁾ 이 경우에 Kil Dong을 Kil-Dong, 아니면 Kildong이나 Kil-dong으로 표현해도 좋으며 Hong, Kil Dong식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여자가 일단 결혼하면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나 한국에서는 그대로 자신의 성을 고수하는 점도 초기 영어학습 단계에 주의깊게 가르쳐야 한다.

12) Wha You Joh, *Today's American English* Vol.1 (Seoul: Woong Jin Media Corporation, 1989), p. 50.

3.1.2 호칭

서열 의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는 한국인이 상대방을 호칭할 때 그들의 나이나 신분, 직위 등에 과도한 신경을 쓰는 데 비해서 미국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자기 억제를 그다지 할 필요가 없는 배경 문화를 가진 영미인들은 형식, 예의에 신경을 쓰는 우리와는 달리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한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유교적 윤리관에서 나온 충성심, 효도심의 개념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수직적,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소속의 테두리 안에서 체면, 예절을 중시하고 초면인 사람에게에는 지극히 배타적인 폐쇄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영미인들에게는 서구 문화의 이성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가 평등의 바탕위에 수평적이고, 집단 소속 감정 속의 체면보다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론하며, 초면·구면의 구별없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다.

이런 문화 배경 때문에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에는 Mr. Brown이니, Mrs. Smith니, Miss Jones 등의 경칭을 성 앞에 붙이더라도 조금만 친해지면 "You can call me Mary."란 식으로 성대신 이름(first name)을 불러달라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는 70이 훨씬넘은 할아버지도 10살이 채 안된 꼬마에게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Just call me Tom."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느 한국인이 미국생활에서 경험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영어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필자의 바로 이웃집에는 Bill Wilson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를 Bill 이라고 불러주면 그 노인이 좋아할 줄 알면서도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무래도 한국인인 나에게는 어색해서 계속 Mr. Wilson이라고 불렀다. 그랬더니

한번은 그 노인이 "Don't mister me. Just call me Bill."이라고 먼저 말하기에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그 노인을 Bill이라 부르고 있다.¹³⁾

위의 경험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칭을 붙이는 것은 공식적(formal)인 경우에 한하며 서로 친숙하고 거리감 없는 생활에서 너무 경칭을 자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억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영미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당연히 형식적인 것보다는 비형식적인 면을 중시하는 문화 배경이 깔려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고객을 상대한다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미국인을 만났을 때 sir나 ma'am 등을 너무 자주 붙이는 것은 호텔보이와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¹⁴⁾ 우리들이 대통령 각하(His Excellency)라 말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들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Mr. President 라고 하다가 이름만 말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같은 경칭 사용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영어 교육 현장에 적용시켜 가르칠 것인가? 일단 대화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가 먼저 첫 수업시간에 들어가 자신을 소개할 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Mr. 나 Mrs.에 관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eacher : I'm your new English teacher, Kyung-hee Kang. If you want, you can use Mrs. with my name.

Student : Mrs. Kyung-hee Kang, what do you want me to call you?

Teacher : I suppose you could call me Mrs. Kang, but I want you to call my first name — Kyung-hee.

Student : O.K. Kyung-hee. My name is Chul-soo Kim.

13) *Ibid.*, p. 73.

14) 민병철, 「민병철 생활영어」 2권 (서울 : 시카고 영어연구원, 1980), pp. 60-61.

Teacher : What shall I call you, Mr. Kim?

Student : Chul-soo will be fine.

이 대화에서 Mrs.를 이름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라 할 지라도 상황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Mrs. Kang 대신 Teacher, Kang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teacher란 표현은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직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¹⁵⁾

이밖에도 앞서서처럼 상대방에게 경칭을 무턱대고 붙이지 말고 경칭을 붙이기 전에 “How do I address you?” 또는, “What do you want me to call you?” 등으로 묻은 다음 원하는 대로 부르는 것이 무례함을 덜어줄 것이다. 이에 관한 대화로는 민병철(1979 : 60)을 참조하라.

3.1.3 인사

우선 우리 학습자들이 영미인을 만났을 때 흔히 사용하는 잘못된 문장을 보자. 한국 사람들은 대개 “어디 가십니까?”라고 인사를 한다. 그러한 일상의 습관화된 언어행동이 미국인을 만날 적에도 그대로 전이(transfer)되어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것을 인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여기므로 구체적인 대답, 이를테면 “To the library to borrow a book.”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한국인들을 버릇없는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 사실은 동일 표현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이나 심상(image)을 자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언어란 그 언어의 습득과

15) Deena R. Levine *et al.*, *The Culture Puzzle*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87), p.7.

활용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문화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영미인을 만났을 때 소개하는 과정을 보자.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소개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소개되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소개된다.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을 소개해도 되며, 여자 또한 남자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악수를 하고 남녀 간에는 여자가 손을 뻗었을 때만 남자가 그 여자와 악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성이 다를 때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키스나 포옹을 하지 않고, 남자들끼리도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결코 키스를 하지 않는다.¹⁶⁾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웃으며 "Hello, my name is _____."라고 한다. 또는 "Hello, I'm _____."라고 한다. 물론, "How do you do?"란 표현도 사용된다는 점은 일반화된 상식이다.¹⁷⁾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재에 수록된 다음 예문을 보자.

A : Hello, I'm Mike Smith.

B : It's nice to meet you, Mike. I'm John Parker.

A : Look, here comes our teacher. Good morning, Mr. Davis.

C : Good morning, Mike.

A : Mr. Davis, this is John Parker.

B : It's a pleasure to meet you, sir.

C : Nice to meet you, John.¹⁸⁾

16) Rhona B. Genzel & Martha Graves Cummings, *op. cit.*, pp.16-17.

17) 그러나 hello란 표현은 전화의 첫마디나 인사말 이외에는 우리의 습관처럼 그렇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18) 장왕록외 3인,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 동아출판사, 1990), p. 14.

이 대화에서도 성대신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리워짐을 볼 수 있다. 소개하는 과정에서 Mike와 John이란 이름이 친근하게 들리고 있다. 더욱이 Mike와 John은 서로 친구로서 나이가 많고, Mike가 상급자인 선생님께 친구인 John을 소개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끼리 마주치면 괜히 어색해하고, 때로는 얼굴까지 붉히는 우리 나라의 생활 습관과 판이한 미국인들의 생활 태도가 이런 예문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즉, 미국인을 우연히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담함을 기르도록 훈련시켜야 하겠다. 다시 중학교 교재에서 서로 소개하는 장면을 찾아보자.

Min-ho : Jane, this is Chin-su.

He is my friend.

Chin-su, this is Jane.

She is American.

Jane : Hi, Chin-su.

Chin-su : Hi, Jane.¹⁹⁾

이 대화에서는 Min-ho가 자기 친구인 Chin-su를 미국인 Jane에게 소개하고 있다. 소개받은 Jane과 Chin-su가 "Hi!"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비슷하고 친구 사이라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서로 거리감을 없애기 위한 경우에 한해 무방한 인사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표현이 영어교육에 필요한 이유는 상황에 따라 거기에 적절한 영어를 구사해야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며, 실제로 손 아래 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경우, "Hi!"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만난 친구에게는 "Hi! Long time no see."란 표현을

19) 홍익표외 3인,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 지학사, 1989), p. 10.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나, 손윗사람에게는 “Good morning (afternoon)!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이란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 점은 아무리 문법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대화자 간의 사회적 지위 및 친분 관계가 어떤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의해 언어 표현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이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3.2 식생활

영미인들과의 문화적 차이점 중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그들의 식생활이다. 특히 식생활은 우리 동양인들과는 전혀 다르므로 우리 학습자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기서는 그들이 중요시하는 식사 예법, 식당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음식 주문하는 방법, 그들의 음주 풍습 까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나 표현방식이 그들에게는 무례해 보이거나 혹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을 살펴보고 한다.

3.2.1 식사

영미인의 식사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재에도 수록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밥과 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빵과 달걀, 샐러드 등을 주로 접했을 때 느끼는 심정이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우선 그들은 아침을 breakfast, 점심을 lunch, 저녁을 supper, 정찬을 dinner라고 표현한다. 정찬이란 식욕 돋구는 음식(appetizer)-주식사(main meal)-후식(dessert) 등의 순서로 격식을 갖추어 잘 먹는 것을 말하며 주로 도시에서는 저녁에 먹는다.

아침은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으며 포리지, 베이컨, 달걀,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는다. 베이컨과 달걀 대신에 생선을 먹기도 하며, 차(tea) 혹은 커피를 아침 식사 때

마실 수 있다.

점심은 1시쯤에 먹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냉육(cold meat), 감자, 그리고 양상치, 오이, 토마토, 양배추 등으로 만든 샐러드를 먹는다. 점시들이 식기대 위에 놓여져 있으면 자신이 직접 점시를 들어 음식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오기도 한다. 다음으로 빵, 비스킷, 치즈를 먹으며 어떤 사람들은 맥주나 와인을 마시기도 한다. 그러나 대낮에 위스키 같은 알코올을 마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저녁(supper)은 미국에서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식사를 말하며, 영국에서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의 저녁 식사이다.

정찬은 대개 7시 30분이 지나서 먹게 되는데, 이것은 하루식사 중 가장 중요하고 매우 격식있는 식사에 속한다. 이 정찬의 첫번째 코스는 앞은 점시에 나오는 수프이다. 수프는 큰 스푼으로 조용하게 먹어야 한다. 두번째 코스는 생선요리로서 여기엔 흔히 나이프나 이 코스를 위해 특별한 모양의 포크가 있다. 다음 코스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고기(소, 양, 닭, 혹은 오리)와 여러 종류의 야채가 제공된다. 네번째 코스는 디저트 순서이다. 디저트에는 사과, 복숭아, 오렌지, 바나나 종류의 과일이 나온다.

이외에도 영미인들은 여가를 즐겨서, 따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과정은 하루 중 가장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으로서 4시와 5시 경에 마련된다. 이 시기에는 가족 구성원이나 방문객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게 된다. 물론, 이 때 케익도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처음부터 케익을 마음껏 먹어서는 안되며 한 점시에 케익을 한 조각 이상 동시에 놓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은 이같은 과정의 식사와 그 메뉴를 잘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는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 작용을 하므로 식사에 어떤 요리나 음식이 준비되고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에서 먹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단어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3.2.2 식사 예법

이번에는 영미인들의 초대를 받거나 혹은 그 이외의 기회가 생길 때 한국인들이 당황해하기 쉬운 여러 예들을 고찰해 보겠다.

특히 정찬인 경우, 영미인들의 경우에는 의상에까지 신경을 쓰기도 하는데, 만약 정찬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미리 정찬 예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알아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혼자만 평상복을 입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게 될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정찬인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둘러 앉아 예의바르고 정중한 행동을 해야 하며, 가족의 가장은 테이블 끝에 앉고, 아내는 맞은 편에 앉는다. 물론, 여기서 예의바르다는 의미는 식사 중에 우리 한국인 처럼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대화를 하며 식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미국인에게는 상대방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식사할 때는 한국인의 묵묵한 자세와는 달리 오히려 우리가 평소 느끼기에 수다스러울 정도로 대화를 나누는게 예의가 된다.

유럽인들은 나이프를 오른손, 포크는 왼손으로 잡지만 미국인들은 먼저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포크를 오른손으로 바꿔 쥐고 먹는다.

식사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앞서 논한 신체 언어의 적절한 사용과 연결되는 것이다.

우선 미국에서는 식사 때, 호스테스가 식탁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한 습관이다. 그러므로 초대 받았을 때에는 먼저 요리에 손을 대지 말고 누군가가 먹기 시작했을 때 함께 먹는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 다음으로 잘 먹었다는 표시로 트림을 하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그들에게 그 행위는 예의에 어긋난 것이므로 삼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식사가 끝나면 음식에 대한 칭찬을 해주며 잘 먹었다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식사 중 기침을 한다거나 딸국질하는 것은 영미

인들에게는 아주 기이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나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식사 중 기침을 하게 되면 항상 "Excuse me."란 말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식사 도중 코를 푸는 행동은 그들 간에는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밥맛이 떨어진다고 불평하며 무례하다고 간주하는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한편 우리가 생리적 현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재채기에 대해서는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경우 건강에 조심하라는 뜻으로 "God bless you!"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밖에 한국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쑤시는 버릇은 미국인들에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면 무례하게 보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3.2.3 음식 주문

한국인들이 미국의 식당에 갔을 때 가장 당황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음식 주문의 경우인데, 이는 steak, coffee, 계란요리 하나하나에도 식성에 맞게 주문하는 그들의 식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steak나 chops, hamburger 등의 식사 주문을 할 경우, 웨이터가 "How do you want your steak?"라고 묻게 되는데, 이 때는 rare(덜 익힌 것), medium(중간쯤 익힌 것), well done(바짝 익힌 것) 중 본인의 식성에 따라 주문하면 된다. 커피일 경우에는 regular(cream을 많이 넣은 것), black(cream을 넣지 않은 것), dark(cream을 약간 넣은 것) 등으로 하고, 계란의 경우 sunny-side up(반숙), scrambled(양쪽 완숙), boiled(삶은 계란) 등으로 요구하며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도 제시한다.

다음에 그들이 실제로 음식을 주문하는 대화 장면을 보자. 우선 커피를 마실 때는 어떤 표현이 바람직한가?

A : You look tired. Did you have a hard day?

B: Sort of. I've been painting all day.

A: Why don't you take a short break?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B: Yes, please. It's just what I need now.

A: How would you like it? With cream and sugar?

B: No, I drink it black.²⁰⁾

학생들에게는 크림이나 밀크가 든 커피를 cream coffee나 milk coffee가 아니라 위 대화에서처럼 coffee with milk 등으로 가르쳐야 한다. 특히 black coffee를 coffee에다 sugar나 cream을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으로 주지시키되, 이 경우에 black대신 plain을 사용해도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식 발상에 젖어 있는 학생들에게 영미인의 방식대로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것만이 올바른 영어를 말하는 지름길이 된다.

다음,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할 때에는 어떤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A: Are you ready to order now?

B: What do you recommend?

A: Sirloin steak is our special of the day, sir.

B: All right. I'll have that.

A: How do you want your steak?

B: Medium, please.²¹⁾

이 경우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잘못 받아들여 스테이크의 양을 중간(medium)으로 해달라는 표현으로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이같은 상황에서 large라고 표현하는 해프닝은 없

20) 장왕록외 3인, *High School English II-A* (서울: 동아출판사, 1990), p. 205.

21) 민병철, 「민병철 생활영어」 3권, 1980, p. 174.

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medium을 스테이크의 양을 중간쯤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경우 양을 많이 해달라는 의미에서 large을 쓰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3.2.4 음주 풍습

우선 미국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21세 이하의 미성년이 술을 마신다든가 술을 산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대표적 음료는 칵테일로서 식사 전 또는 오르되브르(hors d'oeuvre)와 함께 나오기도 한다. 특히 스카치 언더 워터는 미국인이 즐겨 마시는 음료에 속한다. 맥주를 주문하면 반드시 그 상표를 묻는다. 다시 말해 "Beer."라고 주문하면 "What brand?" "What kind?"라는 질문을 꼭 받게 된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길가에 주정뱅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집단중시의 의식구조와는 달리 미국인 전부가 개인의 가정에서 술을 즐기는 습관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술마시는 풍습이나 방식도 한국인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술을 마실 때는 항상 안주를 먹고, 결코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지 않으며, 잔을 돌리는 행위를 우정 내지는 존경의 표시로 생각한다. 잔을 받으면 오른손으로 잔을 들고 왼손으로 받쳐야 한다. 그러나 친한 친구 사이에는 한 손으로 주고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주법이 없다. 안주를 먹지 않으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마시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술 자체를 즐기며 술잔을 남에게 돌린다든지 권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잔에만 스스로 부어서 마시는 것이다. 술잔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므로 마시고 싶지 않더라도 마시는 시늉만이라도 내는 우리 음주 습관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한국인들은 마실만큼 마셨다는 생각이 들면 한 친구가 술그머니 일어나서 술값을 지불하거나 혹은 계산대 앞에서 서로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나서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번에는 다른 친구가 술을 사게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앞에 내놓고 술을 마시거나 돈을 각자 부담하는 dutch pay 형식이 대부분이다. 이같이 다른 음주 풍습이 생긴 것은 한국인들이 가족집단적 의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데 비해 영미인들은 개인의 자주의식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술집에 남자들만이 가는 것이 상식이고 술의 종류가 거의 한정되어 있으나, 미국인들에게는 여자끼리 술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술의 종류도 다양하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접대부로 하여 술을 따라주는 일과 가무 등을 하도록 하여 흥을 돋우고 시끄러운 분위기를 즐기는 한국인들과는 달리 미국인들은 술 자체를 즐기기 위해 안주도 없이 공복에 술만 계속 조용히 마신다.

그러므로 교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상하다거나 인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이 같은 감추어진 부분에 대해 미국인들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은 미국인들이 술집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팁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²²⁾

3.3 일상 생활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미인들의 문화에 접근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와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간 관념에 대한 차이라든가 손님 초대시의 사전 준비나 예절, 초대 받았을 때의 태도 등에서 우리와 많은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신 교환에서의 형식이나, 팁 주기에 대한 내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22) 음주풍습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김창익(1983)의 논문을 참조할 것.

3.3.1 시간 관념

영미인들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조직적 가치 체계로서의 시간 관념에 대한 철학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영미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시간이 말하는 바에 따라 움직인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단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적 상태로서, 과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현재에 머무름 없이 곧바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흐름의 연속이다. 그들은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라는 말을 주문 외듯이 한다.²³⁾

시간제 노임이 확립되어 있고, 시간제로 일하는 직장(part-time job)도 있다. 한국 문화권에서는 강대국들의 억압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억눌림도, 고통스러움도 세월이 흘러가면 해결 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²⁴⁾ 영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간 엄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며, 그럼으로써 어린이들은 시간 엄수와 시간 그 자체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얼마나 시간이 중요한지를 배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다음의 신문기사 내용을 잠시 읽어 보자.

As a child, my mother used to tell me how crucial it was to be at school when the first bell rang. Preparation for my "on-time" appearance began the night before. I was directed to go to bed early so I could wake up wide-eyed at 7 A.M. with enough time to get ready. Although I usually managed to watch my share of TV cartoons, I knew that in one hour I had

23) 박명석, 「동과서: 그 의식구조의 차이」 (서울: 탐구당, 1987), pp. 168-69.

24) 정동빈, 「영어학」 (서울: 한신문화사, 1988), p. 370.

to get dressed, eat breakfast, brush my teeth, comb my hair, and be on my way to school or I would be violating an important rule of Mom's, the school's, or of the world's. It was hard to tell which.²⁵⁾

밤이 되기도 전에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아, 이 신문 기사는 미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시간 엄수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에서처럼 “몇 시 쯤”이나 막연히 “내일 저녁 너의 집에 갈께.”가 아니고 미국인들은 몇 시라는 정확한 시간을 정한다. 사람을 초대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서 미리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아무리 스스럼 없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해 놓지 않고 방문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돈을 소비하고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3.2 손님 초대

미국 사람들은 몇 주일 전부터 꼭 짜여진 스케줄을 잡아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불시의 초대나 방문은 용납될 수가 없다. 앞서 논한 바처럼,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시간이며, 시간의 낭비가 죄악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집에 초대된 손님에게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드십시오. 별로 차린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형식적 예의나 체면을 갖추려고 한다. 이같은 문화 배경을 갖는 한국인이 영미인을 초대했을 때 앞 문장을 직역해서 “Help yourself. We have nothing to eat.” 이라 했다면 상대방은 무안해 할 것이다. 분

25) 이 신문기사는 1979년 6월 24일자 The Los Angeles Times에 “The Early Bird Gets the Burn”이란 제목으로 게재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Levine & Adelman(1982:154)을 참조할 것.

명히 영어다운 표현인 "Help yourself."나 "Please eat everything."을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에 비해 미국인들의 초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들은 초대의 의미를 대화나 담소의 기회로 여기어 많은 음식을 장만하기보다는 간단한 음료와 다과만 있어도 초대가 가능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초대가 끝나 헤어질 때도 우리처럼 "아무 것도 대접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천만의 말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식사에 관한 이야기로 헤어지는 것과는 달리, 거의 정해놓고 "Nice talking to you"(이야기가 즐거웠다) 라고 인사한 뒤 헤어진다.²⁶⁾

식사보다 오히려 대화에 더 큰 초대의 비중을 둔다는 것은 파티의 종류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우선 티파티(tea party)는 대개 오후에서 저녁 때까지 진행되는, 식사를 포함하지 않는 파티로서 격식을 떠나 우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며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고 전화로 연락한다. 칵테일 파티는 가장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서 hors d'oeuvre cocktail이외에는 거의 음식이 나오지 않는 순수한 것과, 어느 정도는 먹을 것이 나오는 cocktail buffet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대개 5시~7시 사이, 후자는 6시~8시 사이에 열린다.²⁷⁾

인쇄된 초청장에는 그 파티가 formal party인지 아닌지 대개 적혀 있으므로 그것을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초청장 맨 밑에 R.S.V.P.라는 네 글자와 전화 번호가 적혀 있으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예의다. R.S.V.P.는 "Repondez s'il vous plait."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모은 것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Please reply."란 말이니까 참석 여부를 꼭 알려 달라는 뜻이다.

만일 초청장에 R.S.V.P. (Regret Only)라고 적혀 있으면 참석을 못할 경우에만

26) 강수연, "한·영어의 배경문화 비교," *Parnassus* 4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회, 1975), p. 84.

27) 최진황, 「영어교수법 이론과 적용」(서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6), p. 230.

전화 연락을 해주면 되고, 참석할 생각이면 안해줘도 좋다. regret는 초청을 정중히 사양하는 말을 뜻한다.²⁸⁾ 파티에 참석할 때, 그 파티는 순전히 성인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지 않고 부부동반을 한다.

그러나 손님을 초대하거나, 자신이 초대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영어 교사로서는 이같은 숨겨진 부분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성인이 디너파티에 초대되었을 경우, 그 집 주인에게 조그맣고 그리 비싸지 않은 와인 한 병이나 꽃, 캔디 한 상자 등의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들고 가는 게 예의바른 행동이다. 또한 사전에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음식은 들고 가지 말아야 한다. 주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친구나 친척을 데리고 가지 않으며, 특별히 어린이들을 초대하지 않았으면 자녀와 같이 가는 것은 초대에 응하는 예의에서 벗어난다.

3.3.3 편지 쓰기

영문편지를 쓸 때 우리 한국인 학습자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것이 주소 표기라 할 수 있다. 도의 명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 군, 그리고 면, 동의 순서로 적는 우리나라의 주소 표기법과는 달리 미국 사람들은 주소의 형식을 우리와 역순으로 번지수, 거리, 시, 주 등의 순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거리명, 주의 이름은 보통 약자로 처리한다. 그 약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⁹⁾

Alabama.....	AL	Arkansas	AR
Alaska	AK	California	CA
Arizona	AZ	Colorado.....	CO

28) Wha You Joh, *Today's American English* Vol. 3, 1989, p. 46.

29) Carolyn M. Starkey & Norgina W. Penn, *Building Real Life English Skills* (Illinois : National Textbook Co., 1987), p. 107.

Connecticut	CT	New Hampshire	NH
Delaware	DE	New Jersey	NJ
District of Columbia.....	DC	New Mexico.....	NM
Florida	FL	New York	NY
Georgia	GA	North Carolina	NC
Guam	GU	North Dakota	ND
Hawaii	HI	Ohio.....	OH
Idaho	ID	Oklahoma	OK
Illinois	IL	Oregon	OR
Indiana	IN	Pennsylvania	PA
Iowa.....	IA	Puerto Rico	PR
Kansas	KS	Rhode Island	RI
Kentucky	KY	South Carolina	SC
Louisiana	LA	South Dakota	SD
Maine	ME	Tennessee	TN
Maryland	MD	Texas	TX
Massachusetts.....	MA	Utah	UT
Michigan	MI	Vermont.....	VT
Minnesota	MN	Virginia	VA
Mississippi	MS	Virgin Islands.....	VI
Missouri	MO	Washington	WA
Montana.....	MT	West Virginia	WV
Nebraska	NE	Wisconsin	WI
Nevada	NV	Wyoming	W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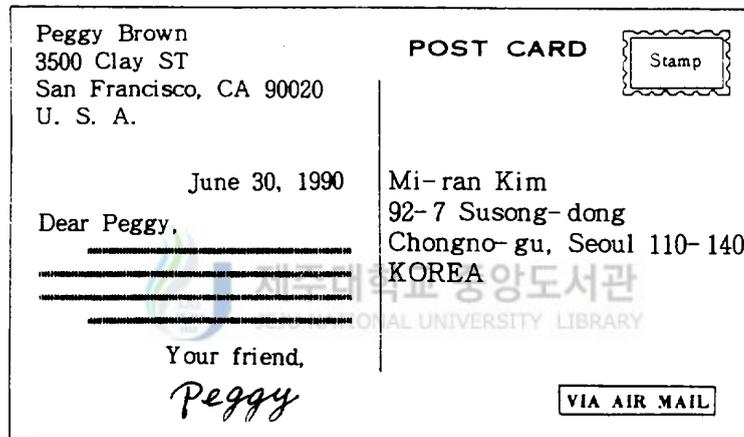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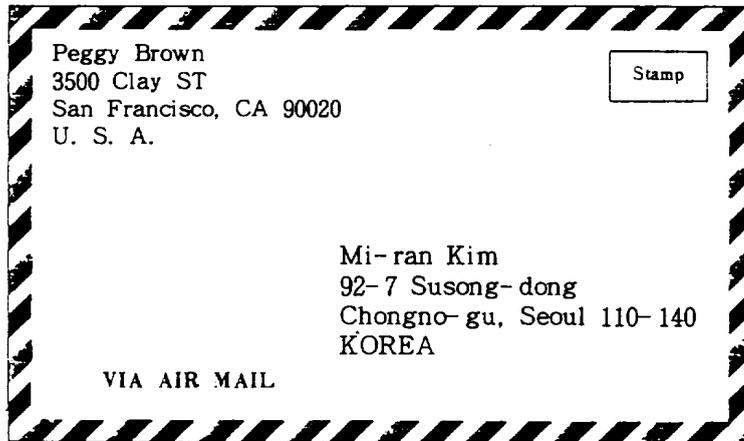
Avenue	AVE	Expressway	EXPY
Court	CT	Heights	HTS
East	E	Hospital	HOSP

Institute.....	INST	Road	RD
Junction	JCT	Rural	R
Lake	LK	Shore	SH
Lakes	LKS	South	S
Lane	LN	Square.....	SQ
Meadows	MDWS	Station	STA
North	N	Street	ST
Palms	PLMS	Terrace	TER
Park.....	PK	Turnpike	TPKE
Parkway.....	PKY	Union	UN
Plaza	PLZ	View	VW
Ridge	RDG	Village	VLG
River	RV	West	W

물론, 우편 배달을 신속히 하기 위해 우편 번호(zip code)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주이름 다음에 쓰는 다섯 숫자의 우편 번호는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최소의 우편지역의 특정 우체국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교사는 전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우리와는 다른 주소 표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준 다음, 편지봉투나 엽서를 학습자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여 학습자가 직접 표기해 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편지봉투나 엽서에 어떻게 주소를 쓰는 것이 좋은지를 중학교 교과서의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⁰⁾

30) 홍익표외 3인,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지학사, 1989), p. 94. 이 경우 주, 거리 및 이름 표기는 필자가 논한대로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위 주소 표기처럼 영미인들은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봉투 왼쪽 상단에 쓰며,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은 오른쪽 중하단에 쓰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봉투 앞전면에 쓰고 뒷면에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적던 것을 몇 년전에 이와 비슷하게 수정하여 쓰고 있다.

편지지에는 윗쪽 상단에 받는 사람의 주소와 날짜를 쓰고, "Dear _____,"라고 쓴다

음 편지 내용을 적는다. 한국인의 장황한 인사 표현 대신에 이같은 간결한 표현은 미국의 사회를 지배하는 효율주의가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친구 사이에는 결구로서 "Your friend," 를 쓰거나 약간의 격식을 차린 편지에서는 "Sincerely yours," 나 "Yours truly," 등을 쓰고 나서 반드시 서명한다. 타자를 한 편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영문 편지 양식은 일반적으로 머리, 날짜, 수신인, 수신인 주소, 인사, 본문, 결구, 서명, 추신으로 이어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ocationMin-ho Kim 31)
 234-12 Myong-dong, Chung-gu,
 Seoul 100-021

DateJanuary 3, 1990

NameMr. Tony Ron

Address239 Mt. Vernon RD
 Newark, OH

SalutationDear Tony,

Body I'm sorry it has taken me so long to write. I've been very busy with work and school, but I've thought about you often.

How've you been lately? Did you have a good Christmas and New Year's?

I had a good long vacation. Tong-su and I went to Cheju-do for a few days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We had a wonderful time there, and thought about the fun we used to have when you were with us.

31) 이 형식은 권순찬외 2인(1985: 69-70)과 이맹성의 3인(1991: 300)을 참조하여 필자의 논지대로 보완하였다.

I haven't heard from Maria since she left Korea. Does she ever write to you? If so, could you please send me her address? I'd really like to get in touch with her.

Well, my sister and I are going skating and she's waiting for me (she says hi), so I guess I'd better say good-bye now.

CloseYour friend,

Signature *Minko*

PostscriptP. S. Write back soon, please.

지도 방안으로서는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에게 직접 실습시키는게 용이하므로 교사는 미리 그들에게 편지 봉투, 엽서 등을 준비하게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앞의 설명을 토대로 각자가 스스로 간단한 영문 편지를 작성해 주소를 표기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서명할 때 도장을 많이 이용하는 대신 영미인들은 반드시 이름을 직접 사인하는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편지를 쓸 때는 자기(I, 또는 we) 중심으로 쓰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임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즉, "I(We)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처럼 자기 위주(I-attitude)의 방식을 지양하고 "Your reply will be appreciated." 처럼 상대방 위주(You-attitude)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편지 쓰기 과정이 왜 중등의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말과 비언어적인 면은 물론, 글에서도 알맞는 영어를 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과의 서신 교환이 많아지는 요즘에 편지에 관한 바른 영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흥미와 수업의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3.3.4 팁 주기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가장 당황해 하는 문제들 중 하나가 팁 주기

(tipping)³²⁾이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경우, 팁을 주고 받는 일에 습관화 되어 있다. 웨이터, 택시기사, 포터, 도어맨, 이용사, 미용사, 구두닦기 등에게 대부분의 경우 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팁을 얼마나 줄 것이냐는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약간씩 유동적일 수 있으나 보통은 전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잠시라도 생활할 때는 팁을 주기 위하여 약간의 잔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단, cafeteria, lunch counter, 약국, 비행기 승무원에게는 팁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팁을 주고 받는 태도는 미국 사회의 기저에 깔린 사고방식으로 특히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팁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항상 감사하며 생활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팁의 생활화가 되지 못한 우리들이 이러한 팁주기 풍습을 모른채 미국 식당에서 겪게 되는 당황함이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한 일화를 박상욱(1982: 46-47)이 쓴 글에서 소개한다.

Chul-soo arrived at a small town of the U.S. from Seoul. He was so hungry that he went to a nearby restaurant. Upon entering, he was shown to a table by a hostess. It was very crowded and many people were having dinner there. Soon a waitress brought him a menu. She was very pretty and kind when she asked him with smile what he wanted to order. Because he was not familiar with American food, he ordered fried shrimp, salad and a glass of milk. After he finished the meal, the waitress again politely and kindly asked him the kind of dessert he wanted to order. He was so full,

32) tip이란 말은 옛날 영국의 음식점에 To Insure Promptness라는 광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약한 것임.

that he said he did not want any more. In a minute, the waitress put the bill on the table and said, "I hope you enjoyed the dinner" Chul-soo replied, "Yes, I enjoyed it very much. Thank you." He soon paid the amount of money the bill indicated at the front desk and left the restaurant in good feeling. Next evening Chul-soo visited the restaurant again for dinner. It was less crowded for a while. At last she came to his table after she served the order two customers. He looked at her and smiled. Surprisingly, the waitress did not respond with the same politeness as the day before. She asked bluntly about the order and she did not even say "I hope you enjoyed the dinner." Chul-soo was very upset when he paid money to the front cashier.

3.4 물건 구입

영미인들의 일상 생활 중 중요한 부분이 생활 용품이나 선물의 구입에 할애된다. 이 경우 우리에게 습관화된 문화 양식을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영미 문화와 마찰을 낳게 되므로 사소한 일상 생활 일지언정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로서는 사전 지식을 많이 습득하여 학생들에게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는 그들의 선물교환 방식을 살펴보고 미국의 약국과 우리의 약국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며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이와 더불어 그들의 지폐 계산 방법에도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3.4.1 선물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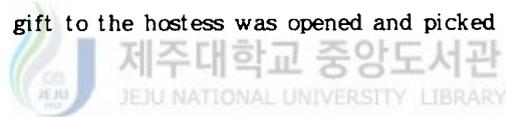
우리 한국인의 경우는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면전에서 개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개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선물을 준 사람의 면전에서 개봉함으로써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며, 사양하는 일이 없이 기꺼이 받는다.

특히 선물을 받을 때 한국인은 “감사합니다” 보다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사양을 함으로써 미국인을 당혹케하기 쉽다. 그들은 선물을 받으면 “Thank you.”라고 활짝 웃으며 기쁨을 표시하는 어조로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은 주로 생일, 결혼 기념일, 크리스마스 와 같은 경축일에 선물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영미인들과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언제나 앞에서 포장을 풀어 선물을 보고 항상 “Thank you.”라는 표현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기, 이러한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한 미국인 가정에 초대 받았을 때 그들의 선물 교환 방식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던 박 명석(1979 : 33) 경우를 소개한다.

A few days before Christmas, I was invited to an American family home in Honolulu with some East-West Center grantees. Each of us was introduced to other American guests. There lay a heap of gifts each of the guests had brought for his(or her) hostess. To my great surprise, the hostess, in the middle of the party, suddenly picked up the gifts one by one and showed them to everybody. I was most embarrassed and ashamed when my small gift to the hostess was opened and picked up for everybody to see.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영미인들과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언제나 앞에서 포장을 풀어 선물을 보고, 항상 고맙다는 표현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3.4.2 약국

drugstore를 그저 한국식 약국으로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아무런 사전 지식없이 미국의 drugstore를 소개받게 된다면 당연히 의아해 할 것이다. 미국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이 drugstore라고 할 수 있는 데, 미국의 drugstore는 처방약을 조제하고 특히 약품을 파는 것 외에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가벼운 음료수, 아이스

크림을 팔게 되었고, 그 후에는 화장품까지 걸들여지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의 drugstore에서 구할 수 있는 상품은 급속히 증가해서 이제는 각종 식품, 개인용 위생품, 어린이 완구, 야외용품, 전기 제품까지 취급한다. 이밖에 기성복, 자동차 용품, 책과 잡지, 담배 등 고객을 위해 용이한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므로 미국에서는 그 기반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저 약만 파는 곳을 drugstore라 생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기능의 다양함에 놀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다음의 예를 보면 미국식 drugstore가 어떤 곳인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를 잘 알지 못한 한국인이 미국인 친구와 같이 drugstore에 가서 그곳을 둘러보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국과 미국의 drugstore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인식해야 한다.

A : Let's stop in this drugstore a minute. I need to get some cigarettes.

B : O.K. I'd like to look around. We don't have drugstores like this in our country. At home they only sell medicine.

A : Well, we can get medicine here, too. See that counter. That's the pharmacy department. The man in the white coat is the pharmacist.

B : Yes, but look at all the other things in here. There are candy, newspapers, books, toys. What's over there?

A : Oh, those are little things for the house. There you can get kitchen gadgets, light bulbs, and such things.

B : And over here are cosmetics.

A : Yes, and shaving things for men. That reminds me. I need some razor blades.

B : Could I get toothpaste here?

A : Sure. See? There it is. It's by the cosmetic counter.

B : Oh, yes, I see it.

A : I tell you what. You get your toothpaste. I'll get my cigarettes and

razor blades. Then we can have a drink at the soda fountain.

B: That's a good idea. I'm hungry. I think I'll get a hamburger and some ice cream. You know, these stores are really convenient!³³⁾

이 같은 점을 볼 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drugstore의 차이점을 다 음과 같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drugstore는 한약을 지어팔고 양약을 조제·판매하며 병원 안의 약재소인 반면, 미국의 drugstore는 약 국을 겸해서 화장품, 문방구, 책, 일용 잡화, coffee 등 음료, 간단한 음식, D.P.E. 및 사진 재료 등을 파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아니면 drugstore의 의미가 확대되 어서 사전식 번역으로는 도저히 맞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drugstore 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없다고 설명하던가, 양약을 조제·판매한다는 곳이라는 점에 서만 서로 같고 그 밖의 점에서는 전혀 다르므로, 우리의 약국에 대응하는 영어는 pharmacy라 설명해도 좋을 것이다.

3.4.3 잘못된 표현

한국인 학습자들은 간혹 단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가르쳐진 표현들 때문에 미국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한 가지 이유는 외래어를 수용할 때 문화적인 측면을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느 교포 가정에서 이웃에 사는 미국인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의 일이 다. 식사가 끝난 후 coffee를 내놓기 전에 손님의 커피에 프림을 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o you take preme in your coffee?"라고 먼저 미국인 부인에게 물어 보았 다. 그랬더니 그 부인은 "Pardon?"(무슨 말씀이시죠?)이라고 다시 물었다. 이번 에는 또 한번 "Do you take preme in your coffee?" 하고 좀더 크게 말해 주었더니 "What is preme?"이라고 반문하였다. 하는 수 없이 프림 병을 꺼내와서 보여 주었

33) Han Shin Publishing Co. ed. *A Laboratory Course in English* (Seoul, 1988), p. 227.

더니 “Oh, cream?” 이와 같이 나중에서야 대화가 통하게 되었다 한다.

이런 경우, preme이라고 말했을 때 미국인이 못 알아 들은 이유는 preme은 cream을 만들어 내는 상표명 (brand name)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어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미국인들은 preme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cream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백화점에서 바바리 코우트를 사려고 “Do you have burberry coat?” 라고 종업원에게 물었더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 한다. 흔히 우리가 “바바리 코우트”라고 하는 것을 미국인들은 trench coat 라고 하기 때문이다. 바바리 또한 Burberrys라는 trench coat를 만들어 내는 영국 회사의 상표명임을 이해해야 한다.³⁴⁾

또한 물건을 사지 않고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을 상점 밖에서 구경하는 것은 window shopping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물건을 사지 않고 눈으로 보고만 지난다는 뜻에서 eye shopping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미국인에게 “Let’s go eye shopping.”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이밖에 잠깐 휴식을 취하며 커피를 마시는 경우를 coffee time으로, 봉급 생활자를 salary man으로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각각 바른 영어 표현인 salaried man이나 salaried worker, coffee break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가구나 다른 장식이 전혀 없는 텅빈 방을 한국인들은 a vacant room이라고 사용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an empty room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a vacant room은 가구나 장식이 비치되어 있지만 현재 사용자가 없는 즉,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 학습자들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표현들 중의 하나는 “I see.”와 “I

34) 민병철, 「민병철 생활영어」 5권, 1983, p. 243.

know.”이다. “I know.”란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을 들었을 때, “I see.”는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들었을 때 하는 얘기다. 예를 들어 “Cheju-do is the largest island in Korea.”라고 했다면 “I know.”를 쓰며, “Becky couldn't come to school because she is sick.”이라고 상대방이 얘기했다면 이 경우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I see.”라고 해야 올바른 영어가 된다.

3.4.4 지폐 계산

미국인들의 돈세는 방법과 잔돈 교환 방식은 한국인과 대조적이다. 그들은 지폐를 왼쪽 손에 쥔 다음 오른손으로 한 장 한 장 들어내면서 센다. 우리들처럼 지폐를 손가락 사이에 넣고 신속하게 세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아주 불편하고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한다.

그들은 물건을 판 다음 거스름 돈을 내줄 때에는 물건값에다 잔돈부터 더해가면서 차츰 고액 지폐를 더해서 총액을 맞추어 준다. 총액에서 물건값을 뺀 잔돈을 건네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예를 들어 2달러 65센트짜리 물건을 사고 10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을 경우, 손님 손바닥에 우선 35센트를 놓으면서 “3 dollars”라고 말하고 그 다음 2달러를 놓으면서 “5 dollars”, 그 다음 5달러짜리를 한장 놓으면서 마지막으로 “10 dollars”라고 말한다. 이 잔돈 교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미국의 화폐단위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1 dollar= 100 cents,	1 dime= 10 cents
1 nickle= 5 cents,	1 quarter= 25 cents
1 cent= 1 penny	

IV. 문화 지도 방안

우리는 앞에서 한국의 문화와 영미 문화가 여러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곳곳에서 지적하였다. 두 문화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가 서로 다른 문화 내용을 접했을 때 적지 않은 문화충격(culture shock)을 느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된다.

그러면 이같은 상이한 문화 내용을 이해시켜 대화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지도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1 문화 즉흥 지도법

이 문화 즉흥 지도법(culture aside)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자 하는 글 속에 문화를 내포하는 내용이 나오면 수시로 어떠한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 내용이 하나의 단어나 문장 속에 나올 때 곧바로 그것을 간단히 말해주는 방법이다. 예로써 교과서의 대화부분에 Valentine's Day나 Halloween 및 drugstore가 나오면 Valentine's Day는 성 발렌타인이 탄생한 날로 2월 14일인데,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카드를 주고 받거나 연인들끼리 카드를 주고 받고 남자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 즉, 아내, 딸, 엄마, 여자 친구에게 초콜렛이나 캔디를 선물하는 날이며, Halloween은 10월 31일인데 어린이들이 갖가지 복장을 하고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trick or treat"³⁵⁾이라고 말하면 어른들이 준비해 두었던 사

35) "장난이나 과자나, 즉 Halloween 때 어린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칠테야" 하고 으름장을 놓는 말.

탕을 그들에게 주는 날이라고 말하는 방법이다. 또한 drugstore가 나오면 앞에서 고찰한 대로 우리의 약국과 다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해 주면 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수업을 하는 동안 문화내용을 따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재의 수업내용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용이한 반면에, 수업 전반에 걸쳐 행하기 때문에 때때로 조직적이지 못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4.2 문화 동화 지도법

이 문화 동화 지도법(culture assimilator)은 문화 간의 이해(cross-cultural understanding)를 돕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처음에는 사회 심리학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외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한 방법이다. 오해(misunderstanding)나 혼동 또는 외국 문화에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부여된 이야기를 학습자로 하여금 묵독시킨 후, 문제를 제시하고 가능한 4개의 가능한 답을 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한 답을 찾아내게 함으로써 오해, 적대감을 일으키기 쉬운 양문화의 차이점을 이해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은 하나의 자습기술(self-learning technique)로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숙제(assignment)로 적합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방법은 통찰력과 지구력뿐만 아니라 이해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불편이 따른다.

Bals(1974)가 제시한 다음의 글은 학습 현장에서 문화간의 이해 즉, 미국문화와 독일문화간의 정확한 이해를 시킬 때 많은 도움을 준다.

Bals(1974) gives an example in which the afternoon visit of a young American to a German home does not turn out as well as he had anticipated. Knowing that a gift is appropriate, he presents the hostess

with a bouquet of red roses. However, he is startled to notice that she reacts negatively to the gift. The interpretations are (1) the hostess is allergic to roses; (2) the hostess prefers to buy her own flowers; (3) flowers are appropriate only when the guest is having dinner; or (4) red roses are given to sweethearts, not to hostesses.³⁶⁾

즉, 젊은 미국인이 독일인 가정을 방문할 때 선물로 장미꽃을 준 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큼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문화적인 차이와 더불어 질문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어떻게 지도해야 좋은지를 알아 보기 위해 다음 문장을 보자.

A few weeks after I began to study in the new environment of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Hawaii, I was introduced to an American high-school teacher from New York City. As an East-West Center grantee, he had been studying Japanese and Chinese for one year. There being something common between us (we had been high school teachers a short time before and were now students again), soon we became very intimate. One day he suggested we go to a Korean restaurant, saying that he knew a place not far from school where they served a wonderful Korean food, kalbi (barbecued beef ribs). I went wild over the prospect of eating Korean kalbi.

That afternoon at the Korean restaurant, we ordered kalbi and a bowl of rice with kimchi for each of us. I had longed for Korean food so long that I enjoyed it very much for the first time since coming to Hawaii. After

36) Kenneth Chaistain, *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p., 1979), p.395.

eating all the food which was achingly delicious for me, we headed for the cashier, my friend going before me. He paid and went out. I was going out assuming that my friend had already paid for me. But the girl said, "Three dollars and fifty cents please." At that moment I blushed and felt keenly what "going Dutch" in American means, although I had heard about it many times before I came to America.³⁷⁾

위 내용은 앞에서 다룬 미국인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는 이 같은 문장을 학생들에게 묵독 시키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답을 찾도록 하면 된다.

Question : Why did he blush and feel keenly before the cashier?

Choose the most accurate answer.

- A. Because he had no money to pay the bill.
- B. Because the food was too expensive to pay.
- C. Because he expected that his friend would pay total bill.
- D. Because the girl was very ugly.

다음으로 위 문제에 학생들이 답했을 때 옳고 그름을 문화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알려 주도록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You chose A. This is not right answer.

You chose B. Generally speaking, the price, three dollars and fifty cents is not so expensive.

37) Myung-Seok Park,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 Korean And American* (Seoul : Han Shin Publishing Co., 1979), pp. 32-33.

You chose C. Right answer. In Korea, the one who first suggests going out for dinner or drinks, pays not only for his own but also for his friend or whoever reaches the cashier first also pays for his friend.

You chose D. We have no idea about her appearance from the above passage.

교사가 이 같은 과정을 밟는 것은 한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미국 문화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문화상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시키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팁 주거나 선물 교환 방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4.3 문화 캡슐 지도법

이 방법은 한·미 두 나라의 문화 중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문화 캡슐로 간단하게 기술한 다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행동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간단한 질문을 던진 뒤에 학습자들 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며 나중에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간단한 연극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문화 동화 지도법과 다른 점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지도법은 학생들에게 목록을 하지 않고 구두로 말하도록 하는 점이 다르다. 둘째, 이 지도법은 오해하기 쉬운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자는 외국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시를 통해서 자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갖는다.

문화 캡슐 지도법이 현장에서 어떤 과정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를 앞에서 다룬 미

국인의 질서 의식 즉,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Gwang-bin went to the airport with his American friend Bill and Bill's older sister Nancy as they were leaving for America. Gwang-bin and Bill went to buy a last minute present and Nancy waited in line to check in their luggage. When Bill and Gwang-bin returned twenty minutes later, Nancy still had not gotten very far in the line. Angrily, she said "People are so rude, they keep rushing in front me." Gwang-bin helped her keep her place in line. When they got their boarding passes, Gwang-bin pointed to the gate number using his middle finger; Nancy and Bill looked at each other, perplexed. As they entered the gate and got ready to board the plane, Nancy warmly reached out and hugged Gwang-bin "good-bye." Gwang-bin felt stiff and surprised.³⁸⁾

우선 학생으로 하여금 구두로 위 에세이를 발표하도록 한다. 이 내용을 보충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탐승 수속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림이나 슬라이드기와 시각 자료를 이용하여 충분히 보게 한 다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Questions :

1. Why were people rushing in front of Nancy in line?
2. Why did Bill and Nancy look at each other in bewilderment when Gwang-bin pointed to the gate?
3. Why did Gwang-bin stiffen when Nancy hugged him?

위 질문을 한 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이 범하기 쉬운 줄끼어들기(to cut

38) 이 이야기는 Hunt(1990 : 37-38)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into the line)와 미국인의 차례지키기 문화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한다. 토론이 상당히 진행된 후 그와 같은 문화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을 실시해 본다.

4.4 문화 토론 지도법

문화 토론 지도법(culture cluster)³⁹⁾은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들어 있는 3개의 캡슐 속의 내용을 30분 정도 교실에서 직접 훑내내 보고 교사가 질문을 던져 그 내용을 확인한 후, 15분 정도 토론을 함으로써 문화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상황에 따라 항상 필요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생생한 영미 문화를 접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만드는 지도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논한 식사 예법에 관한 문화 내용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문화 토론 지도법을 적용시켜 알아보자. 우선 문화 정보가 있는 3개의 캡슐을 만들고 각 캡슐이 끝날 때마다 교사가 질문을 하여 3개의 캡슐 내용의 이해가 끝나면 실지 장면을 연상하면서 모의 연극을 해보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을 끝나치고 토론을 15분 정도 진행시키면 되며, 그 후 미진한 부분은 평가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문화 내용을 연극으로 간단히 시행하도록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식사 예법에 관한 캡슐은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캡슐 1: 영미식으로 식탁을 차리는 법

캡슐 2: 식탁에서의 예법

캡슐 3: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참여하는 경우의 예법

39) culture cluster란 개념은 George대학교의 Betsy Meade와 Genelle Morain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우선 제 1캡슐의 정보를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식탁의 준비물들을 학생들에게 말한 다음 따라 읽도록 하고 식탁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신의 옆에 마련된 식탁에 갖다 놓는다. 여기에는 식탁보, 접시, 잔, 나이프, 포오크, 스푼, 빵, 버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윽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물건을 들어 올리며 어느 곳에 놓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물어보면 된다.

다음 제 2캡슐의 내용으로 들어가 교사는 직접 식사하는 동작을 보여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도록 지도한다. 힘든 과정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유도하도록 하고, 평가는 희망자로 하여금 식사 예법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범을 보인 후 실시하도록 한다. 물론, 이 때 시각 자료는 식탁과 의자, 빵과 술을 그린 것으로 하면 된다.

이어서 제 3캡슐 내용인 가족끼리 식사하는 방법을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는 식탁 대신 책상 식탁을 마련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몇몇 가족단위로 나누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어서 교사가 식탁위에 놓인 물건들의 이름을 대면 학생들은 그것을 들어 식탁의 정확한 위치에 놓는다. 이 경우,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학생들은 여기서 배운 내용을 흉내내 보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모습을 연극으로 실시해 본다.

이 과정에 끝나면 가족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원인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 등에 관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한국의 문화와 차이나는 식사 예법이 어떠한지를 다시 토의하고 나중에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역할을 다시 부여하여 연극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4.5 기타 지도법

앞서 제시한 지도 방안 외에 우리는 교실(classroom)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지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수업에 임하

기 전 문화 내용이 담긴 용이주도한 차트를 만들어 수업 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즉시 학습자들에게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게시판 (bulletin boards)을 이용한 문화 지도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모의 게임 (simulation games), 노래와 춤 (songs and dances), 신문과 잡지 (newspapers and magazines) 등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독자적으로 스크랩 등을 준비해 오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4.5.1 게시판

게시판은 학급의 분위기를 상쾌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를 소개하는 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교사가 설명해 준 문화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보려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를 잘 설명해 주는 비언어적 행위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작품을 게시판에 게시하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영미인들의 정신과 재치가 담긴 속담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1일 격언” 같은 난을 만들어 학습 시간 외에 학습자들이 저절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⁴⁰⁾ 예를 들어 현행 고등학교 교재에는 “A new broom sweeps clean.”,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Beware of a wolf in sheep’s clothing.”, “There is no new thing under the sun.”, “Time discovers the truth.”, “Time is on our side.”⁴¹⁾ 등 영미인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속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국에서 온 엽서나 우표를 게시판에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5.2 모의 게임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영미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문화를 흉내

40) 한·영 속담에 대해서는 강수언(1989)을 참조할 것.

41) 이기동의 2인, *High School English II-A* (서울:웅진출판주식회사, 1990), p. 232.

냄으로써 영미 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영미 문화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소개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연습을 해 본다면 큰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고찰한 식사에 대한 요리(cooking)나 미국 가정 초대(invitation to American home) 및 기타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면 문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이같은 방법이 현장에서 이용 가능하리라고 보는 이유는 최근 여러 면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나가 부모와 더불어 잠시라도 생활하다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모의 게임을 시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4.5.3 노래와 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교사가 직접 영미인이 부르는 노래를 춤과 더불어 소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래 속에 담긴 문화의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노래는 단지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만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속에는 영미인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 있다는 생각으로 지도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사는 영미인들이 어떤 경우에 자신이 소개하는 노래들을 부르는지, 또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인지, 집에서 부르는 노래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모든 문화는 생생하고 매력적이며 즐겁고 풍부한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Rivers(1981 : 331)의 말처럼, 영미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속에는 반드시 그들의 생생한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유의하고 곡목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르치면 될 것이다.

다음의 Oh Susanna라는 미국 노래의 가사를 예로 들어 보겠다.

Lyrics :

I come from Alabama, with my banjo on my knee,

I'm going to Louisiana, my Susanna for to see.

It rained all day the night I left, the weather was so dry,

The sun so hot, I froze myself, Susanna don't you cry.

Chorus :

Oh Susanna, Oh don't you cry for me,
For I come from Alabama, with my banjo on my knee.
I had a dream the other night, when everything was still,
I thought I saw Susanna, a-coming down the hill.
The buckwheat cake was in her mouth, the tear was in her eyes;
Says I, "I'm coming from the South," Susanna don't you cry.

Chorus⁴²⁾

이처럼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따라 부르게 해 본 다음 그들로 하여금 미국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작곡가 Stephen Foster의 위상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든지 혹은 이 노래가 1849년 황금이 발견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급히 이주했던 California Gold Rush의 주제곡이었다고 설명해 줌으로써 미국의 음악 속에 반영된 미국인의 정신을 알도록 하면 된다.

4.5.4 축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영미의 축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영미의 축제 내용을 실제 교실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은 영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부여해 주는 결과가 된다.

예컨대, 미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 중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Halloween 같은 것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탄절 축하 행사로 간단한 연극이나 성가나 캐롤 등을 부르게 하는 것도 즐거운 지도가 된다.

42) Marianne Celce-Murcia & Lois McIntosh,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assachusetts : Newbury House Publishers, 1979), pp.51-52.

교사로서는 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문화 즉흥 지도법을 이용하는 것 외에 슬라이드와 영사기 등을 동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며, 학습자 중에서 축제에 관한 내용을 그리게 하여 교실 벽에 걸어 놓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욱이 축제에 필요한 간단한 식사와 음식물 등을 준비하도록 하여 내용을 설명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4.5.5 신문과 잡지

신문과 잡지는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영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신문과 잡지를 항상 대하고 있어야 바람직하다. 가령 Time지와 Newsweek지에 재미있는 football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잡지를 보며 지도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 The Korea Herald나 The Korea Times에 영미 문화에 관한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읽고 학생들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화 내용이 담긴 신문 기사를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On any given day, more than one in three American adults will eat at least one meal away from home. This means almost 66 million Americans eat out every day.⁴³⁾

교사는 이런 기사를 학습자들에게 읽게 하고 식생활 풍습을 설명하면서 미국인들의 식생활에 대한 동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게 할 수 있게 한다.

43) The Korea Herald, August 28, 1987, p.3.

4.5.6 자료 수집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영미 문화에 관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계획하여 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지도법이다. 학생으로 하여금 영국, 미국에 관한 그림을 모집하거나 스크랩북을 만들도록 하거나, 또는 유명한 인물, 예컨대 Lincoln이나 Kennedy, Shakespeare 등을 구두로 말하게 하여 영미 문화의 배경에 깔린 개혁 정신, 자유와 평등 사상, 독립 정신, 실용 정신 등을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 본고는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영미인들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의 양면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두 문화간의 차이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의 문화 지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교육적으로 감추어진 영역(hidden dimension)이라 할 만큼 문화상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몸짓, 비언어적 신호, 간격유지, 신체 언어, 시선 집중이 내포하는 뜻이란, 사실의 의사소통을 대신하는 이상의 함축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영미인들의 행동하는 무언의 동작 속에는 전술한 바처럼 한국인 학습자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영미인들이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취하는 몸짓, 표정, 신체 언어 등의 비언어적 행동의 이면에는 말로써는 다 나타낼 수 없는 화자의 의도가 들어 있는 셈이다.

게다가 영미인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경우에도 그들이 주고 받는 대화 속에는 우리의 아주 다른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필자가 다룬 영미인들의 신앙표현, 식생활, 일상 생활, 물건 구입의 면에서는 우리 문화와는 차이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미 문화를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에서 이와같은 문화적인 차이점을 극복하고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문화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가르치고자 하는 문장 속에 영미 문화를 반영하는 내용이 나오면 수시로 간략히 설명하는 문화 즉흥 지도법이다. 둘째, 오해나 혼동 또는, 영미 문화에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된 이야기를 목록시킨 후 문제를 제시하고 가능한 4개의 답을 주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한 답을 찾아내게 하는 문화 동화 지도법이다. 세째는 한·영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그림, 구두발표 등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문화 캡슐 지도법이다. 넷째는, 영미 문화 내용을 몇 가지 캡슐로 구성하고 거기서 얻은 내용을 종합하여 학습자들에게 30분 정도 직접 흉내를 내보도록 한 후, 교사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하며 문화를 지도하는 문화 토론 지도 방식이다. 이밖에 게시판, 모의 게임, 노래와 춤, 신문과 잡지, 자료 수집 방법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문화를 지도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외국의 문화나 문물에 대한 이해이며, 이를 통하여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의식 구조, 사상 등의 모든 면을 알 수 있다고 할 때 현장에서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로서 영미 문화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에서는 그 설정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지도가 거의 무시되어 왔으며, 간혹 있다 하더라도 단편적으로만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영어 학습은 영어가 사용되는 문화적 상황의 이해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여 영미 문화 지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와는 다른 문화 내용의 이해를 통하여 영어를 철저히 가르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수언, "한·영어의 배경문화 비교," *Parnassu* 4,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회, 1975.
pp. 75-90.
- _____,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89.
- 권순찬외 2인, 「논문작성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
- 김광수, "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 「춘천교육대학 논문집」
Vol. 23, 1983. pp.87-105.
- 김성중, "외국어교육과 문화지도," 「청주사범대학 논문집」 Vol. 20, 1987.
pp. 69-88.
- 김익상, 한·미간의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창익, 미시적 한·미문화의 대조분석, 송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민병철, 「민병철 생활영어」 2권, 서울: 시카고 영어연구원, 1979.
- _____, 「민병철 생활영어」 3권, 1980.
- _____, 「민병철 생활영어」 5권, 1983.
- 박명석, 「동과서: 그 의식구조의 차이」, 서울: 탐구당, 1987.
- 박상옥, "문화교육의 의의와 방법의 문제점," 「영어교육」 제23호, 서울: 한국영어
교육학회, 1982. pp.30 - 60.
- 박형기, "한영 양어의 어휘의 비교," 「영어교육」 제21호, 서울: 한국영어교육학
회, 1981. pp.73 - 102.
- 신용진, 「영어교육공학 I」, 서울: 준지각, 1985.
- 이기동 & Kurt F. Weigelt, *High School English I-A*, 서울: 웅진출판주식회사, 1990.

- 이맹성의 3인, *High School English II-A*, 서울 : 지학사, 1991.
- 장왕록의 3인, *High School English I, II-A*, 서울 : 동아출판사, 1990.
- 정동빈, 「영어학」, 서울 : 한신문화사, 1988.
- 최진황, 「영어교수법 이론과 적용」, 서울 :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6.
- 홍익표의 3인, *Middle School English 1, 2*, 서울 : 지학사, 1989.
- Brown, H. Douglas,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0.
- Celce-Murcia, Marianne & Lois McIntosh,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assachusetts : Newbury House Publishers, 1979.
- Chaistain, Kenneth, *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9.
- Genzel, Rhona B. & Martha Graves Cummings, *Culturally Speaking*,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86.
- Hall, Edward T.,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 Double Day, 1959.
- Han Shin Publishing Co. ed. *A Laboratory Course in English*, Seoul, 1988.
- Hirasawa, Louise & Linda Markstein, *Developing Reading Skills*, Rowley :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1974.
- Hunt, Patricia, "Techniques and Methods for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Your Classroom", *KOSETA REPORT*, Seoul : Kumsung Textbook Co., 1990.
- Joh, Wha You, *Today's American English Vol. 1*, Seoul : Woong Jin Media Corporation, 1989.
- _____, *Today's American English Vol. 3*, 1989.
- Krashen, Stephen D. & Tracy D. Terrell, *The Natural Approach*, California : The Alemany Press, 1983.

- Klopf, Donald W. & Myung-Seok Park,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s*, Seoul : Han Shin Publishing Co. , 1982.
- Levine, Deena R. , Jim Baxter & Piper McNulty, *The Culture Puzzle*,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1987.
- Levine, Deena R. & Mara B. Adelman, *Beyond Language*,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1982.
- Park, Myung-Seok,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 Korean And American*, Seoul : Han Shin Publishing Co. , 1979.
- Rivers, Wilga M., *Speaking in Many Tongues : Essay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Massachusetts : Newbury House Publishing Inc. , 1972.
- _____,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Seelye, H. Ned, *Teaching Culture*, Illinois : National Textbook Co., 1985.
- Shakespeare W. , *The Arden Shakespeare : The Winter's Tale*, London : Methuen, 1966.
- Starkey, Carolyn M. & Norgina W. Penn, *Building Real Life English Skills*, Illinois : National Textbook Co. , 1987.
- Zanger, Virginia Vogel, *Face to Face*, Cambridge : Newbury House Publishers, 1985.

Abstract

An Effective English Education Through Cultural Instruction

Kang Kyung - hee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mpare and analyze Korean and British-American cultures and to discover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which may be effectively utilized in the Korean English classroom.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deeper levels of the cultures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on presenting some devices for teaching cultural content in order to effectively teach both verbal and nonverbal aspects of English.

The nonverbal communication of English speakers—the way they express their ideas, intentions and feelings without words—is an important hidden dimension of English education because Korean learners of English can unknowingly communicate messages they do not intend to send. For example, nonverbal cues, space, body language and eye contact are

culturally loaded aspects of nonverbal communication among Korean students.

Cultural differences can also be highlighted by examining verbal communication in various situations; personal affairs, eating habits, daily activities and buying things. When English teachers are well informed and alert to these cultural differences and try to instruct with such a cultural background, effective teaching of English can be carried out in the Korean English classroom.

Therefore, to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and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English education, it is desirable to use the following techniques in the classroom : Culture Asides, Culture Assimilators, Culture Capsules, Culture Clusters and other activities.

In culture asides, short explanations on British-American English culture are immediately provided when reading relevant passages. In culture assimilators, students read passages illustrating situations which may potentially be confusing or be misunderstood by members of American and Korean cultures. Then they are given problems to solve which evaluate the degree of their understanding. In culture capsules,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British-American culture are illustrated with pictures and oral presentations. In culture clusters, students are provided with three general culture capsules and they discuss their findings for 30 minutes. Then the teacher asks questions to summarize students' findings.

In addition, the use of bulletin boards, simulation games, songs, dances, newspapers, magazines and other materials relevant to British-American culture can be effective devices for teaching cultural information.

In conclusion, keeping in mind that the true sense of English learning is achieved through understanding the cultural background in which the language is uttered, English teachers should make an effort to teach the contents of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